



1946년 4월 창간 | 재발행 2007년 9월 16일 제 2810호

ihonam@naver.com



2019년 11월 6일 (음력 10월 10일) 수요일

호남신문

목포해상케이블카 안전 등 문제 잇단 노출...보완 요구 '봇물'

장시간 대기 따른 사전예약제 도입·안내시스템 절실

“유람선 환승 등 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 개발해야”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 2개월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안전체계 확립은 물론 장시간 대기와 주차장 이용 불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또, 케이블카 운행과 연계한 목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도 탑승 후 유람선 환승 등 연계상품 개발과 특산품판매, 먹거리 부스 운영, 야간 경관개선 등 관광객을 위한 놀거리·먹거리 등 확충도 과제로 제시됐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11월 실과 소장 시정현안 회의에서 부서별로 최근 목포관광의 구심점인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대한 탑승객 의견 분석을 통해 개선·보완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부서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

말 등에 탑승객들이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탑승 시간대별로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승강장 대합실 안과 밖에 전광판을 설치, 탑승순번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 유달산 승강장 탑승자 대기 시 빈 캐빈을 별도로 배정해주라는 주문도 많았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고하도 스테이션에 주차요금 정산과 안내를 하는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현재 3시간 무료인 북항과 고하도 주차장 주차시간을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고령자 등 탑승객 대기

에 따른 의자, 차양막 등 편의시설 확충, 목포시민 할인율(4000원)보다 낮은 노인·장애인 할인율(2000원)을 상향하는 요금제 개선이 요구됐다.

목포해상케이블카의 편도요금이 왕복요금 대비 비율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포는 왕복 2만 2000원, 편도 1만 8000원으로 81.8%인 반면 여수케이블카는 왕복 1만 5000원, 편도 1만 2000원(80%), 덕유산 왕복 1만 6000원, 편도 1만 2000원(75%), 통영 왕복 1만 1000원, 편도 7500원(68%), 사천 왕복 1만 5000원, 편도 9000원(60%)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케이블카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작동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상황

실, 관광과, 119 등 유관기관에 상황전파를 담당하는 연락관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야간에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케이블카 캐빈 외부에 형광도색이나 LED조명을 설치하고, 야간경관을 위해 제주출할 여객선, 국제여객터미널 정박 선박 등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왕복탑승 뿐 아니라 편도탑승 후 유람선이나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카 편도이용 손님들을 고하도 선착장에서 춤추는 바다분수가 있는 평화광장 간바위 해양유물전시관, 북항부두 노을공원, 회센터 등과 연결하는 서틀 관광선을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고하도 공생원 건물을 활용, 매주 3일간 특산품 판매 및 먹거리 부스 운영, 승강장 산책길에 포토존 조성, 케이블카 탑승 시 목



포전경, 주변 섬 등에 대한 안내방송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관광 활성화의 호기를 맞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민원과 요구사항도 많다”며 “시와 케이블카 측이 안전은 물론 관광불편해소, 고객만족, 관광상품 개발 등을 위해 주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지난 9월 6일 개통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52일 운행에 3만 8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크고 작은 면허사고도 10여 차례 발생하고, 지난달 26일에는 북항 스테이션 에스컬레이터 오작동으로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신안군, 왕새우 소비촉진 운동 대대적 전개

가격하락 및 판매부진에 양식어가 어려움 겪어

신안군이 최근 왕새우 가격하락 및 판매부진에 따른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왕새우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에 따르면 작년까지만 해도 산지에서 높은 가격(17,000~18,000원)에 거래되었지만, 금년에는 전국적 생산량 증가 및 경기불황(소비부진)으로 가격하락(12,000~13,000원)과 함께 거래까지 원활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10월 중순경부터 직원들이 왕새우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등) 공무원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왕새우 소비촉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왕새우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키토산 성분을 다양 함유하고 있어 콜라겐을 수치를 낮춰주는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계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양 함유된 신안 왕새우는 맛과 영양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왕새우 소비촉진 운동으로 아직까지 출하를 하지 못한 양식어가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수온이 떨어지기 전에 판내 왕새우 판매(출하)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의 새우양식은 271어가(889.4ha)에서 연간 3,000여톤, 500억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양식새우 생산량의 52%(전남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 송지면에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발견...긴급 방제 나서

전남도, 대책회의 갖고 예찰강화 나무주사 처방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도, 해남군, 인근시·군 관계관은 최근 해남 송지면에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돼 전남도가 긴급조치에 나섰다.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인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돼 전남도가 긴급조치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해남 송지

면 주변에 역학조사반을 파견,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4개 기관은 피해목 주변 10km 이내 지역까지 헬기와 드론을 이용해 소나무재선충병 정밀 예찰을 하고, 피해목 주변 50m 이내 소나무와 주변지역 우량 소나무림에 예방 나무주사를 처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면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허성은 기자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